

2015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5년 6월 25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 성 근 위 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 | | |
|----------|-----------------|--------------|
| 5. 참 여 자 | 하 성 감 사 | 허 재 성 부총재보 |
| | 서 영 경 부총재보 | 이 흥 모 부총재보 |
| | 김 민 호 부총재보 | 윤 면 식 부총재보 |
| |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
| | 조 정 환 금융안정국장 |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
| |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 홍 승 제 국제국장 |
| |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 박 성 준 공보관 |
| | 박 철 원 의사팀장 | |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0호 —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6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6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및 보완·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먼저 가계, 기업,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금융시장, 외환건전성, 금융시장 인프라 등 각 부문별로 안정상황을 평가하고, 각 부문의 특이 동향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를 통해, 그리고 식별 가능한 잠재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현안분석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하였음.

가계부문에서는 2014년 8월 이후 크게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내용과 한계가구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새롭게 산출한 가계부실위험지수를 바탕으로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주택가격 하락 시나리오(scenario)에 의거하여 부실위험가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함으로써 가계 재무건전성을 점검하였음.

기업부문에서는 한계기업 현황과 함께 엔화약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며, 최근의 수익성·성장성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차입 축소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부채·자본 증감 유형별로 기업성과를 분석하였음.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부문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이에 따른 자본유출시 국내은행의 대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자본적정성·외화유동성 부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률 추구를 위해 시종자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유입되는 현황을 분석하고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음.

외환건전성 부문에서는 최근 비은행 부문의 외화자산 운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그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음.

한편 위원협의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들은 가계부채 관련 위험성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이의 위험성을 적극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한계가구의 위험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부실위험가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의 단일충격 이외에도 두 가지 충격을 동시에 상정한 복합

충격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변적(Time-varying) 리스크와 횡단면 리스크(Cross-sectional)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국민총소득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많이 낮아진 점을 감안하여 가계의 시변적 리스크 분석시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외에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횡단면 리스크를 측정함에 있어 금융기관 간에 자산, 부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하여 이의 한계점이나 충격, 파급경로의 단순함으로 인해 그레이 스완(gray swan)을 놓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하여 전체 은행시스템에 대한 종합결과 이외에 개별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비은행부문의 해외투자 증대가 환헤지(hedge) 과정에서 단기외채를 증대시킬 수 있으나 외환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의 가독성과 분석의 깊이 간에 조화를 모색하고 본문과 참고자료 간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금융안정보고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과정 및 보고서 발간 이후 제시되는 금융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추후 보고서 작성시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고, 금융안정보고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제안된 의견들은 향후 금융안정보고서 집필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6월)(안)(생략)